

완도 가두리서 즐기는 ‘쌈박한 낚시’ 인기

관광객 저렴한 가격에 손맛·회맛... 어민들은 판매 소득 ‘짹짹’

완도 바다 가두리 활어 양식장에서 즐기는 쌈박한 낚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객은 손맛, 회맛을 쌈박하게 즐기고 어민은 유통비용 없이 짹짹한 판매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쌈박한 낚시란 값비싼 낚시장비와 장시간을 소비하며 즐기는 일반 바다낚시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고기를 낚아 즉석에서 회를 맛볼 수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지면 송곡리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는 이 쌈박한 낚시를 즐기고자 주말엔 100여 명이 몰리고 있다. 낚시대, 미끼, 구멍조개는 무료로 빌려준다. 체험비 1만5000원을 내면 시간제한 없이 개인당 4kg(6만 원)까지 낚을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장백(51)씨는 “우럭 등 활어 소비

화에 대처하고자 개발한 쌈박한 낚시는 재미와 더불어 짧은 시간에 목표량을 낚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즐겨 찾고 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쌈박한 낚시는 양식산 어류 소비 문화와 적조 공포에 시달리는 어민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가족단위 레포츠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관광객들이 쌈박한 낚시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화재 대피 이렇게 하세요 목포소방서를 방문한 어린이들이 화재시 대피훈련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목포드림스타트센터는 최근 ‘소방안전 교육과 숲길 트레킹 체험’을 실시했다. <목포시 제공>

무안교육청 ‘교육품앗이...’ 교육부 우수 프로그램에

무안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2013년 교육지원청 현장지원 기능강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1일 무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8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우수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전국에서 10개 교육지원청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무안교육지원청의 ‘교육품앗이 무안모아(母兒)로 행복무안 교육실현’이 유일하게

뽑혔다. 학부도 교육기부를 통한 계절제 체험프로그램인 교육품앗이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강사로 나서는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군 보조금 지원 사업 확정(연 1억원)으로 안정적 운영 기반도 마련됐으며 무안지역을 벗어나 전남지역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수상레저스포츠 체험마당

목포서 17~18일 이틀간

목포 평화광장에서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마당’이 열린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체험마당은

신종 레저 스포츠인 제토베이터 시연을 시작으로 바나나보트, 팽공 보트, 모터보트, 카약, 수상자전거, 열기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평화광장 주무대에서 태권 체조, 스포츠댄스 등 식전 행사와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성내면 제외 고창·부안군 4개면 포함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도

전북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확대되고 전남에만 설치된 민간환경감시 기구도 이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들이 우려한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한 김완주 전북지사와 김춘진(고창·부안) 국회의 원에게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을 감안, 방사선비상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확대지역과 범위는 지역별 환경 등 실정을 고려해 정부와 사업자가 해당 광역단체장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며 확대의지를 드러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금까지의 안전 대책이 원전 내부와 원전 소재지 위

주로 돼 있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비상계획 확대 등을 통해 전북지역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 수립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도내 비상계획구역은 영광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10km 반경 내에 있는 고창군 공음면·상하면·해리면 등 3개 면 지역이다.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상구역이 반경 30km로 확대되면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4개면(진서·변산·위도·줄포)까지 포함된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 비상 또는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현재는 전국 각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8~10km로 설정돼 있다. 그동안 전북은 고창군과 인접한 영광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가동중단 등으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원자력위원회에 요구했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 풍산면에 농공단지 추가 조성

17만㎡ 131억 들여 내년 완공

순창에 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북도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일원 17만㎡ 규모에 총 131억원을 투자하는 ‘풍산 제2 농공단지’ 조성안을 승인했다. 이 농공단지는 앞서 2011년 농식품 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로 지정돼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협의,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다. 도는 농공단지를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풍산 제1농공단지가 100% 분양돼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업들의 수요를 맞추고자 제 2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제 2단지에는 ‘한국씨멘티’의 섬유공장이 증설되고 건축재 타일 생산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연일 폭염으로 열대야가 계속되자 썬값에 맥주와 안주를 즐길 수 있는 가맥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은 전주의 한 가맥집 내부 모습. <연합뉴스>

한여름의 오아시스... 전주 ‘가맥’을 아시나요

<가게 맥주집>

“전주의 ‘가맥’을 아시나요” 전주의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주의 명물 ‘가맥’에 손님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애주가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전주 ‘가맥’은 ‘가게 맥주집’의 줄임말이다.

1980년대 초반 전주 경원동 일대 작은 가게들이 탁자와 의자를 몇 개 놓고 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가맥은 태어났다. 역사로 보자면 만 30년이 넘었을 정도로 이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안주는 갑오징어나 황태, 계란말이, 팥공 등 간단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중 맥비는 갑오징어다. 갑오징어는 오징어보다 질겨서 망치로

두드려 살을 부드럽게 해 내오는 데, 가맥 집마다 갑오징어를 찍어 먹는 양념장이 달라 이를 맛보는 재미도 있다. 원조 가맥 집으로 불리는 J가맥

썬값에 부담없어 300곳 이상 영업중

집집마다 갑오징어 양념장 달라 별미

역사 30년 넘어 전주 문화 자리매김

의 주인 A씨는 “장사를 한 지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는 옛 추억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고 더위를 쫓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요즘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가맥 집은 전주에 300곳 이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한 병에 2500원으로 서민의 사랑

을 받고 있다. 특히 집값이 얇은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맥주를 즐길 수 있어 가맥 집을 선호한다.

여름에는 야외에 놓인 탁자와 에어컨이 틀어진 실내까지 갖추고 있어 열대야에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최근에는 국가대표 축구경기나 해외파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게 아예 대형 TV를 설치한 집도 많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조명훈(34)씨는 “친구를 이야기를 듣고 가맥 집을 찾았는데 갑오징어와 양념장이 정말 맛있었다”면서 “서울에 가서도 이 맛이 생각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신안 귀농인 70명이 협동조합 설립

‘천사섬 협동조합’ 결성

신안군으로 온 귀농인 70명이 ‘천사섬 귀농인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70명이 창립총회를 열고 힘을 모아 농촌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귀농인협동조합을 결성한 조합원들은 신안군에 귀농한 창업농으로 농촌경험이 부족하고 영농규모가 영세한 약점을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화를 통해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이들은 창립총회에서 정관확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승인, 출자금 납부

등 안건을 채택했다. 협동조합은 앞으로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수특산물을 인터넷 쇼파몰로 판매하고 낙지잡이, 해양레저사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을 이끌어갈 이사장에는 4년 전 자은도로 귀농해 고구마, 양파 등을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는 은희송씨가 선출됐다. 신안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귀농어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조례를 제정,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 귀농인들은 2011년 7월 30여명으로 귀농인연합회를 결성했으며 현재 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음악회 열린다

완도수목원, 17일 청소년수련원

전남도완도수목원(원장 박형호)은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청소년수련원 잔디광장에서 ‘한여름 밤 숲속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2014년 완도에서 열리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완도수목원과 전남도청소년수련원이 지닌 푸른 숲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장소가 전남도청소년수련원인 만큼 그동안 정적인 분위기를 탈피, 역동적인 분위기로 기획했다. 청소년들이 에너지와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록 그룹 마리서사와 지역학교 그룹사운드 공연을 준비했다. 지역민을 위해 7080세대의 인기그룹인 나는 못난이의 주인공 ‘디헤미리’ 무대를 구성하는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로 황칠나무, 녹나무 등 난대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산림체험과 생태교육장으로 인기가 높다. 또 열대식물과 선인장이 전시된 아열대 온실과 수목원, 난대림의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림전시관, 난대림을 주제로 한 한옥형 산림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중이다. 완도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푸른숲과 아름다운 선율이 만나 청소년과 관람객에게 오감을 자극하는 선물을 안기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숲 치유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단 신

전주 전통술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전통술박물관이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전통주를 빚어보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에서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청주와 함께 국화주, 막걸리, 동동주 등 6가지의 전통술 제조법을 가르쳐 준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강좌당 30명씩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문의는 전주전통술박물관(063-287-6305)으로 하면 된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혁신도시 택시요금 기본료 2800원으로 통일

11일부터 전북 혁신도시 내의 택시요금 기본료가 2800원으로 통일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와 완주군 경계에 있는 혁신도시지구를 ‘택시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 요금을 통일화 했다고 밝혔다. 그간 혁신도시 내 택시사업구역이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분리돼 있어서 택시 요금도 따로 적용돼 왔다. 전주시의 기본요금은 2800원인데 반해 완주군의 기본요금은 350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

국립공원 내장산 오늘부터 경내버스 운행

국립공원 내장산에 경내버스가 운행된다. 버스기에는 1대의 차량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행하며 상수구령의를 도모하고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6년간의 한정면허를 발급, 경내버스가 운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내버스는 12일부터 매표소가 있는 내장산 금성교에서 탐방안내소가

지 2.3km구간에서 운행된다. 버스기에는 1대의 차량이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행하며 상수구령에는 4대의 차량이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요금은 성인의 경우 1000원이며 8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약자는 500원이다. /전주=박금석기자 parkks@

군산역사박물관 ‘전래 민속놀이 행사’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래 민속놀이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인간 줄다리기와 비석치기, 신발 던지기 등 12가지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14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와 군산시청 박물관관리계(063-454-787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kwangju.co.kr